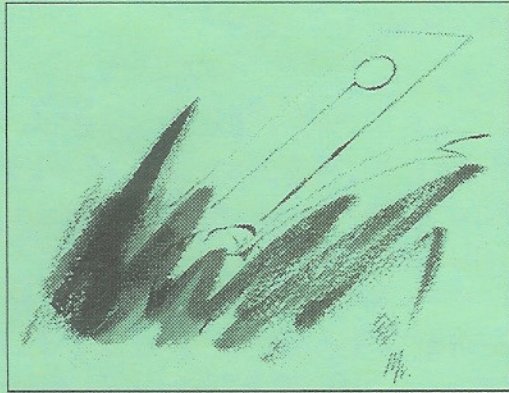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제29권 32호(나해) 2009 · 7 · 5

## [묵상]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

서라벌 옛 터전에 연꽃이 이올어라.  
선비네 흰옷자락 어둠에 질어 갈 제  
진리의 찬란한 빛 그 몸에 담뱃 안고  
한 떨기 무궁화로 피어난 님이시여.  
동지사 오가던 길 삼천리 트였건만  
복음의 사도 앞에 단혀진 조국의 문  
겨래의 잠 깨우려 애타신 그이 낮이  
이역의 별빛 아래 외로이 슬펐어라.  
해지는 만리장성 돌베개 삼아 자고  
송가리 언저리에 고달픈 몸이어도  
황해의 노도엔들 꺾일 줄 있을소냐?  
장할손 그 뜻이야 싱싱히 살았어라.  
한강수 굽이굽이 노들이 복되도다.  
열두칼 서슬 아래 조찰히 홀리신 피  
우리의 힘줄 안에 벽차게 뛰노느니  
타오른 가슴마다 하늘이 푸르러라.  
가신 님 자국자국 남긴 피 뒤를 따라  
싸우며 끊임없이 이기며 가오리니,  
김대건 수선탕덕 양떼를 돌보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 이 땅에 퍼주소서.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목요일 | 아침 미사 (레지오)<br>저녁 미사         | 오전<br>오후       | 9:00<br>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br>오후       | 8:30<br>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br>오전<br>오전 | 7:30<br>9:30<br>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화요일 |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에<br>예비자 교리반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에<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br>M.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br>PACEM모임 (매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br>오후 7:30                    |
| 토요일 |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br>폐제기도모임 (2째주)                                                                                                   | 오후 6:00<br>오후 5:00<br>오후 8:30                               |
| 주일  | 병자 영성체<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3째주 - 행사의 날<br>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형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특전 미사 | (연)한숙이 모니카, 엄은섭 도로테오<br>(생)민석준 토마스와 영준 마르코, 조지 가보라, 청년 성령세미나 참가자들, 이마테오와 도미틸다 가정, 최인용, 최지영, 박경리,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
| 주 일 낮 미사  | (연)장현숙 발바라, 김미카엘과 이마리아,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이상현 베드로, 김금련 아가다,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금순 마리아, 최병기 요셉, 박석규 베르나르도,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유춘자 미카엘라, 김경연 마리아<br>(생)이인숙 베로니카, 안마르코, 안에스터, 박진수 스테파노와 혜경 레나타, 권진열 피테스와 병연 리디아, 최다미아노와 프란체스카 가정, 최석원 클레멘스, 이종민 요셉, 조안젤라와 어거스틴 가정, 이종원 베드로와 아베스 가정, 김브랜든과 강크리스틴, 케네스 한 바오로와 제임스 베드로, 남성 푸르실로 수장자와 봉사자들, 손성희 안나, 최영신 부제, 구마리아네 수녀, 박상대 사제 |

## 오늘의 전례

|       |                                                                                                                                                                                                                                                                                                                    |
|-------|--------------------------------------------------------------------------------------------------------------------------------------------------------------------------------------------------------------------------------------------------------------------------------------------------------------------|
| 제 1독서 |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
| 화답송   |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br>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br>○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br>나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br>내 바위 내 성채는 당신이시니,<br>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br>○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br>당신은 나를 구해주시리이다.<br>나는 주님만 믿삽나이다.<br>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 하나이다.◎<br>○당신의 종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br>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살려주소서.<br>당신 얼굴 그느르심으로<br>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하시나이다.◎ |
| 제 2독서 | 로마서(Romans) 5,1-5                                                                                                                                                                                                                                                                                                  |
| 복음    | ◎알렐루야.                                                                                                                                                                                                                                                                                                             |
| 환호송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br>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음    | 마테오(Matthew) 10,17-22                                                                                                                                                                                                                                                                                              |
|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br>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108        | 343     |
| 봉헌  | 373        | 108     |
| 성체  | 370        | 307,298 |
| 파견  | 199        | 345     |

## 15) 유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아진단(胎兒診斷)은 비도덕적이다.

☞“만일 태아 진단이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들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긍정적이다. ... 그러나 만일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엄격히 도덕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생명의 선물 제1부 2항>

언젠가부터 양수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산모가 태아 진단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아진단은 태아의 건강을 미리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태를 권고하고 시술해주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장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은 생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고에 근거”한 “우생학적 낙태”라고 비판합니다.(생명의 복음 14항) 이런 의도를 가진 부모뿐 아니라 이런 의도로 태아 진단을 하거나 낙태를 시킬 의도로 태아 진단을 받도록 태아의 부모를 유도하는 의사나 의료 단체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범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16) 인간 배아에 대한 치료를 위한 개입은 가능하나 온전성과 생명을 해치는 조작이나 시술은 비윤리적이다.

☞“태아의 생명과 그 온전성을 존중하며 태아에게 과도한 위험성이 없고 ... 건강 증진과 생존과 치료를 위해 하는 의학 적 시술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생명의 선물 제1부 3항> “염색체나 유전적 소실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작들 중에는 그것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특정 성감별이나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이런 조작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주체성에 위배되는 일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생명의 선물 제1부 6항>

미국의 한 산부인과는 인공수정과 배아 선별을 통해 아이의 성별은 물론 외모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광고한다고 합니다. 수정란 가운데 특별 유전자가 있는 배아만을 골라서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인간의 생명을 시작한 배아를 실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조작하는 일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을 한낱 실험 재료로 여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즐기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더욱더 부당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소서.”(집회서 21,13; 23,1)



## 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신앙인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는(1821-1846) 하느님을 ‘임자’로 불렀다. 그는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의 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 보지 못하면 세상에 난 보람이 없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쳤다.

1821년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난 성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충명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1836년 12월 마카오로 떠난다.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품에 오른다. 김대건 신부는 그해 10월 12일 귀국하여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846년 6월 5일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받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다음날인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그는 사목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고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했다. 김대건 신부는 사형 집행 전 큰 소리로 마지막 설교를 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설교가 끝난 후 관리들은 김 신부의 웃옷을 벗기고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흰 회를 발랐다. 무릎을 꿇리고 밧줄 한 가닥으로 머리칼을 동여매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다. 그때 김대건 신부는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던 기백과 용기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라고 하신다.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배척을 받고,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와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왜 신앙인은 박해를 당하는가? 세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따라서 죄와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하고 두려워한다. 어둠의 행위가 빛속에서 낱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순교는 본래 증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며 동시에 순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옛날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훌륭한 순교이다. 어쩌면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다.

“순교자 김대건 사제와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싱     | 정미영<br>미카엘라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이태호<br>바오로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김금자<br>테레사  | 권순길<br>체칠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남 2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문재원<br>클로틸다    | 신덕례<br>테레사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민슬기<br>로사리아    | 김교복<br>레오  | 이재웅<br>안드레아   |
| 제2독서자 | 이성연<br>크리스티나   | 박혜경<br>레나타 | 이혜선<br>안젤라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2,3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2007년 7월부터 2년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오세원(아타나시오) 본당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9년 7월1일부터 본당 총회장으로 이재정(사도 요한) 형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 ◆ 지난 부제품 서품식 및 수품 감사미사 때 여러 형제 자매님께서 분에 넘칠 만큼 많은 사랑의 영적 물질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우선 주보를 통하여 부족하나마 인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와 숙 클라라 올림.

- ◆ 남가주 제30차 남성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식 및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5일) 오후 7시30분
  - 장소 : 강당
    - \* 백삼위 꾸르실리스트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새로 탄생한 후배들을 격려하고 '그 날의 감격'을 되살립니다.
  - 새 꾸르실리스트 : 이희수 올리오, 김찬구 요한, 최현찬 안드레아, 김광일 스테파노

- ◆ 남가주 청년연합회 소풍 및 체육대회
  - 일시 : 7월12일(주일) 오전10시  
백삼위 청년회/대학부는 오전 9시까지
  - 위치 : El dorado Park (Lakewood), 회비 : \$5/person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당 ☎(310)508-2123  
최인용 안드레아 ☎(310)991-0995  
\* 주차비가 \$5/car이므로 카풀하면 편리합니다.

- ◆ 성모회 7월 총회
  - 일시 : 7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강당

- 저녁식사 제공. 성모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 ◆ 백삼위 찬미의 밤
  - 일시 : 7월18일(토) 오후8시~11시
  - 장소 : 성모 동산
  - 주제 : '주님께 찬미를'
  - 준비물 : 두터운 옷, 묵주
- ◆ 레지오 마리아에 소식
  - 새 프레시디움 '사도의 모후'(주일 남성 낮반) 창단
    - \* 주회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 회의실
    - \* 단장 : 김정웅 요한 ☎(310)720-8240
  - 꾸리아 '천상의 어머니' 창단 : 7월19일 주일미사 중에.
    - \* 회합 : 매달 둘째주일 오후 2시30분
    - \* 단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 꾸리아(Curia)는 본당에서 활동하는 레지오 마리아의 기본 조직인 프레시디움(Presidium)의 상급조직을 일컫습니다.

-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보급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 구명순 데레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지난 3월30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신 구명순 데레사님(전 배론청년회 방수형 치릴로와 방우리 레지나 남매의 조모)께서 6월30일(화)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0세. 방영화 요세피나 자매의 시모님이기도하신 방데레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례미사는 7월2일 홍제동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5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7월12일(주일) : 토런스 남1반(도시락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장인모<br>김태호<br>신순철<br>유근태<br>이호세<br>최상규 | 권오상<br>민정근<br>엄영희<br>윤석구<br>임재범<br>최수복 | 김선영<br>박정희<br>오일순<br>윤화경<br>정연영<br>한창주 | 김성현<br>박종열<br>오진<br>이병우<br>조화숙 | 김 은<br>박진심<br>우영주<br>이현주<br>최기남 | 김재연<br>송호창<br>유경자<br>이호미<br>최미열 |
|----------------|----------------------------------------|----------------------------------------|----------------------------------------|--------------------------------|---------------------------------|---------------------------------|
| 합계 : \$4,050   |                                        |                                        |                                        |                                |                                 |                                 |
| 미사헌금 : \$2,640 |                                        |                                        |                                        |                                |                                 |                                 |

| 성전헌금               | 권오상<br>박종열<br>유경자<br>임재범 | 김선영<br>송호창<br>윤화경<br>조화숙 | 김성현<br>신순철<br>이병우<br>최기남 | 김재연<br>엄세종<br>이현주<br>최미열 | 민정근<br>오일순<br>이호미<br>최상규 | 박정희<br>우영주<br>이호세<br>한창주 |
|--------------------|--------------------------|--------------------------|--------------------------|--------------------------|--------------------------|--------------------------|
| 합계 : \$2,920       |                          |                          |                          |                          |                          |                          |
| 감사헌금 : 이인석 유요한 정치영 |                          |                          |                          |                          |                          |                          |



## 공지사항

◆ 전진성사 증서/기념사진 찾아가세요.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 주일학교 소식

◆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학생미사 : 매 주일 오전 9시30분. 여름방학 중에 자녀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 9월13일(주일)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75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대상 : 9학년~12학년(주일학교)
- 지도교사 : 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베로니카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남가주 소식

◆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의한 8박9일 침묵 피정

- 일시 : 8월12일(수)~8월20일(목)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집
- 주제 : 예수님과 함께 갈망하는 삶을 향해
- 지도 : 윤성희 이냐시오 신부(예수회)
- 주관 :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정도로테아 ☎(818)321-9505  
전아네스☎(213)507-1144  
\* 신청마감 : 7월25일(토)

◆ 제4차 세계 울뜨레아 대회

- 일정 : 8월1일(토) 낮 12시~오후 9시
- 장소 :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티켓예매 : \$25
- 접수 : 정병옥 율리아 ☎(310)404-1607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모임의 날 | 오전 9시, 오후 1시 |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br>차 장<br>차 장                   |     |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br>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남명자 데레사<br>328-0847                            |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br>7/10(금) 오후 7시30분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한창주 요아킴 530-7702                                 |
|                                          | 3   | 신티레 데레사<br>634-6169                            | 신티레 데레사 634-6169                                 |
|                                          | 4   | 정종미 클라라                                        | 정종미 클라라 373-1237                                 |
| 토런스 서<br>박정애<br>소화<br>데레사<br>218-7340    | 1   | 김순희 모니카<br>328-1817                            | 김순희 모니카 328-1817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br>7/11(토), 할리웃볼, 5:30 월슨파크 집합 |
|                                          | 3   | 장정진 베로니카<br>803-7798                           |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최옥희 데레사<br>378-4183                            | 최옥희 데레사 378-4183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임한나 325-6982<br>7/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이혜선 안젤라<br>793-7733                            | 이혜선 안젤라 793-7733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권병연<br>리디아<br>938-3255          | 1/2 | 최미열 클라라<br>895-8624                            | 최미열 클라라 895-8624<br>7/19(일) 오전 10시 델슨파크 야유회      |
|                                          | 3   | 대건회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br>윤남열<br>세라피나<br><br>365-7871 | 1   | 김민수 바오로<br>530-3232                            | 김민수 바오로 530-3232                                 |
|                                          | 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br>7/11(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8360     | 1   | 최길숙 요세피나<br>997-9006                           |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br>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파크   |
|                                          | 2   | 김숙희 유소자<br>544-4807                            |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265-0856                          |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br>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파크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br>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파크   |



## ◎ 신임 본당 총회장의 인사 ◎

백삼위 한인성당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2009년 7월부터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장직을 맡게 된 이재정 사도 요한입니다.

저희 성당이 이곳 Torrance에 자리 잡기 전에 Carson에 있는 St. Philomena 성당 소속의 성 체칠리아 성당에서 1983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미사 때에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미사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는 했었습니다. 집 근처의 미국 성당에 3-4년을 다니고, 다시 돌아와서는 1997년 당시의 주임신부님께서 제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에는 성당의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일(Sunday)에 4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됐다고 하시기에 처음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4일,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바뀌면서 성당이 한참 힘이 들었을 때에는 일주일에 7일 내내 나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지요.

그 동안에 주임 신부님이 4번 바뀔 때마다, 평신도 사도직 협회회의 제무, 총무, 부회장, 그리고 법인 이사회 재무이사의 임무를 맡아 교회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임무를 수행할 때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내세우지 않고,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언제나 기도하고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 분들의 기도와 노력 덕분에 이곳 Torrance에 이처럼 훌륭한 성당도 지어졌고, 깨끗한 사제관도 마련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성당을 보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살피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해 온 우리들 각자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적으로 우리 본당을 더욱 훌륭하게 키워 나갈 때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총회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봉사자분들의 뒤를 이어서, 많이 늘어난 젊은 신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든든하게 하고, 또한 현재 잘 나오시지 않는 신자 분들을 나오게 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신자들도 늘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저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백삼위 성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분들은 서로 방향은 다르게,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보고 있든지, 단 한 가지, 성인들 한분 한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와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신부님, 수녀님, 부제님, 그리고 서로 서로를) 내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각자가 속한 소공동체와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 나아갈 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래 전에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신자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천한 제가 봉사직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도 기회가 주어 질 때 마다 봉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며 생활하면서, 스스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 분들이 앞에 나서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그리고 기도생활을 할 때에, 각자의 신앙심이 더욱 두터워 질 것이며, 나아가 우리 성당도 안팎으로 더욱 훌륭한 성당이 될 것입니다. 각자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이재정 사도 요한 / 신임 본당 총회장 올림.